

# 간호사의 정보자원 접근 및 활용정도와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 및 역량

이지은<sup>1</sup> · 박명화<sup>2</sup>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간호사<sup>1</sup>,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sup>2</sup>

## Nurses' Access &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Barriers & Competency of Evidence Based Practice

Yi, Jieun<sup>1</sup> · Park, Myonghwa<sup>2</sup>

<sup>1</sup>Nurse,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sup>2</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urses' access and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to identify the barriers and competency to evidence based practice (EBP). This study used descriptive method to identify baseline data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strategies for establishing EBP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78 nurses from five hospitals in Daegu and Kyungbukdo.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SPSS/WIN 15.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NOVA. **Results:** Nurses reported \*most frequently using paper and human resources. The mean score of barriers was  $3.02 \pm 0.41$ , and competency was  $2.70 \pm 0.50$ . The reported competency was correlated with nurse factors ( $r = -.31, p < .001$ ) organization factors ( $r = -.20, p < .001$ ) and research factors ( $r = -.12, p < .040$ ) as the barriers to evidence based practice. **Conclusion:** To promote competency in EBP and to decrease the barriers,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at encourages nurses to be involved in research activitie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systemic methods to introduce and establish an education program for facilitating EBP in the clinical settings is needed.

**Key Words:** Evidence based practice, Nurse, Competency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질환의 다양화 및 의료정보의 급속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에 속하는 간호사들은 최상의 근거를 확인 및 평가하고 임상 실무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임상적 사결정 도구로서 근거중심간호(Evidence Based Nursing)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ark, 2004).

**주요어:** 근거중심실무, 간호사, 역량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Myonghwa,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2800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704-701, Korea.  
Tel: 82-53-580-3923, Fax: 82-53-580-3916, E-mail: mhpark1@kmu.ac.kr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연구임(No. 2010-0024922).

- This work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No. 2010-0024922).

투고일 2011년 4월 4일 / 수정일 2011년 6월 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3일

근거중심 간호실무란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최상의 연구 근거와 전문성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 활용가능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하며(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STTI], 2005), 연구자들이 행한 연구결과를 간호교육과 임상 간호현장에 적용하여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간호의 우월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Kim, 2003).

임상적 의사결정에 있어 연구근거가 중요시 되고 있으나 간호사들은 여전히 임상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경험적 지식이나 인적 정보 자원과 같은 비과학적 근거를 과신하거나 고수하려는 습성이 있다(Thompson, 2003). 의료인의 연구활용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에 관해 조사한 연구에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약 35%정도만이 연구근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와 관련된 임상 결정시 최신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강력한 근거에 기반 하기보다는 기존 지식이나 자신의 이전 환자 치료 경험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u, Lopez, & Thompson, 2008; Estabrooks, Chong, & Brigidear, 2005).

연구결과가 간호실무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확인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장애요인은 시간부족이나 연구의 가치에 대한 인식 또는 동기부족 등 간호사 개인 차원의 요인, 환자 관리에서의 간호조직의 자율성 부족 등의 조직적 요인, 연구의 질적 측면과 방법론적 차원에서 연구요인, 그리고 연구의 전달력이나 유용성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요인 등으로 나타났다(Brown, Wickline, Ecoff, & Glaser, 2009; McInerney & Suleman, 2010; Solomons & Sprose, 2011). 근거중심실무는 단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의료인이 평생 습득하고 배워 나가야할 지식과 기술, 태도의 통합체이며 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증재에 대해 효과를 비평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하는데 근거중심실무 역량이 필요하다. 근거중심실무의 수행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근거중심실무 역량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한 핵심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지식, 구체적인 질문들과 관련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문헌을 검색하는 기술, 연구를 통해 확인된 근거를 타당성과 일반화를 위하여 비평적으로 평가하고 최선의 활용 가능한 근거를 임상적 경험과 대상자의 가치를 바탕으로 간호실무에 적용하는 능력(Dragan, 2009; Park, 2006)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연구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규명한 임상

연구와 임상간호사들의 연구 관련 활동 및 연구결과 활용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가 시행된 바 있으나(Lee & Kim, 2000; Park, 2001; Oh, Oh, & Lee, 2004), 주로 연구결과 활용과 연구수행에의 장애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근거중심실무의 관점에서 임상간호사의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정도, 근거중심실무에의 장애요인 및 역량에 대한 연구는 시행된 바가 없다.

임상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이론과 실무와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자원 접근방법과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지와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근거중심실무에의 장애요인과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근거중심실무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를 통하여 생성된 근거를 포함하여 임상간호사들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정도와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장애요인 및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근거중심실무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정보자원에의 접근과 활용정도를 알아본다.
- 간호사의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과 역량을 알아본다.
- 간호사의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과 역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 및 역량을 알아본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정보자원에의 접근과 활용정도 및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 경북에 소재하는 400병상 이상의 5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 278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본수

산정은 G-Power 3.0 analysis program에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효과크기 .20, 유의수준 .05에서 검정력 .80일 때 대상자수가 150명이므로 본 연구대상자수 278명은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Cunningham & McCrum-Gardener, 2007).

### 3. 연구도구

#### 1) 정보자원의 접근과 활용정도

정보자원의 접근은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 자원의 보유와 접근의 용이성을 의미하며(Thompson et al., 2004), 본 연구에서의 접근 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1인이 국내의 임상환경과 연구대상자에 맞게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동료 간호사나 의사 활용과 같은 인적자원에 접근하는 유형의 6문항, 임상간호현장에서 배치된 실무직침서나 집담회 자료, 학술지 등과 같은 종이문서자원에 접근하는 유형의 10문항,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 등과 같은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자원에 접근하는 유형의 4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측정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정보자원에의 접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자원의 활용정도는 임상간호사가 접근한 연구근거를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Thompson et al., 2004), 본 연구에서의 활용도는 접근도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 2)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은 근거중심실무의 주요요소인 연구근거를 활용하는데 지각되는 장애요인을 말하며(Funk, Champagne, Wiese, & Tornquist, 1991), 장애요인 도구는 Thompson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Park (2005)이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와 Funk 등(1991)에 의해 개발된 장애요인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에서의 '동료 간호사들의 나이가 연구근거 활용에 실제적인 장애요인이다', '연구근거를 찾기 위해 간호학 저널보다 의학저널을 더 많이 활용한다', '연구근거 활용에 의사들은 비협조적이다', '일반간호사보다 관리직 간호사에게 연구가 더 필요하다' 등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이나 직업적 특성 및 연구근거의 특성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항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자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요인 6문항, 연구근거가 임상간호사에게 배포 및 전달되는 과정과

관련된 의사소통요인의 5문항, 간호사가 근무하는 조직의 특성에 관련된 조직체요인의 5문항, 연구에 대한 간호사 개인의 가치관, 지식, 인식과 같은 간호사 요인의 8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측정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0 이상(Funk et al., 1991; Park, 200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9이었다.

#### 3) 근거중심실무 역량

근거중심실무 역량은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 지식과 기술, 행동의 통합된 능력을 말하며(Dragan, 2009), Academic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 [ACE] (2005)에서 개발한 근거중심간호실무 핵심역량을 학사수준의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와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간호학 관련 교수 1인이 함께 타당한 어휘가 되도록 1차 번역한 후, 상호 비교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임상문제 확인 2문항, 근거의 검색 6문항, 실무적용을 위한 근거의 가공 8문항, 근거의 실무적용 3문항, 실무적용후의 평가 1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측정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구, 경북의 400병상 이상의 5개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간호부를 통해 연구목적 및 협조를 구한 뒤 회수용 봉투를 동봉한 우편 패키지를 이용하여 300명의 대상자에게 배부 후 10일 이내에 수거하였으며 총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278부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5. 자료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연구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정보자원의 접근과 활용정도 및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과 역량은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과 역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 및 역량은 t-test,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간호사의 일반적 및 연구 관련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및 연구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나이는 20~30세가 183명(65.27%)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전문대졸이 174명(62.59%), 총 임상경력은 5년 이하의 경력이 137명(49.28%)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208명(74.82%)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부서는 외과 병동 95명(34.17%), 내과병동 83명(29.86%) 순이었다.

연구방법론을 이수한 대상자가 136명(48.92%)로 절반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0명(21.59%), 통계학 강좌 이수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09명(39.21%)로 나타났다. 학회나 학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가 42명(15.11%),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73명(26.26%)로 나타났다. 연구근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대상자가 243명(87.41%)로 높았으며 연구근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 대해 임상에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할 때 63명(25.93%), 신규 간호사나 후배 간호사를 교육할 때 61명(25.10%)로 나타났다. 실무와는 다른 최신의 연구근거를 알게 된다면 연구결과를 적용하겠다는 질문에 '그렇다'의 응답이 242명(87.05%)로 나타났다.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02명(36.69%)로 근거중심실무에 대해 알고 있는 간호사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으며 근거중심실무를 알게 된 경로는 교육기관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96명(44.04%)로 가장 많았다.

### 2. 정보자원의 접근과 활용정도

정보자원의 접근과 활용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정보자원의 접근정도에 대해 각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중

이문서자원의 접근이  $3.04 \pm 0.48$ , 인적자원이  $2.95 \pm 0.57$ , 전자문서자원이  $2.82 \pm 0.55$ 점의 순으로 종이문서자원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점수에서 인적 자원에 속하는 '동료간호사'가  $3.57 \pm 0.89$ 점으로 접근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자문서자원인 '인터넷 정보'  $3.56 \pm 0.79$ 점, 종이문서자원인 '병동에 배치된 오리엔테이션 자료'  $3.50 \pm 0.74$ 점 순으로 근거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자원의 활용정도에서 인적 자원의 활용도가  $3.03 \pm 0.54$ 점, 종이문서자원  $2.97 \pm 0.51$ 점, 전자문서자원  $2.71 \pm 0.61$ 점의 순으로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점수에서 인적자원인 '동료간호사'가  $3.52 \pm 0.93$ 점으로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활용도 측면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종이문서자원인 '교과서'  $3.31 \pm 0.88$ 점, 전자문서자원인 '인터넷 정보'  $3.41 \pm 0.92$ 점 순으로 근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적자원인 '전공교수'  $2.20 \pm 1.01$ 점, 종이문서자원인 '도서관에 배치된 학술지'는  $2.13 \pm 0.84$ 점으로 접근과 활용정도가 가장 낮았다.

### 3.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

간호사가 지각하는 근거중심실무 총 장애점수는 5점 만점에  $3.02 \pm 0.41$ 점으로 연구근거를 활용하는데 중정도 이상의 장애를 느끼며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 요인이  $3.46 \pm 0.63$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체 요인  $3.12 \pm 0.51$ , 연구요인  $2.93 \pm 0.41$ , 간호사 요인  $2.76 \pm 0.57$  순으로 장애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 순위에서 연구요인에 속하는 '연구논문은 너무 복잡하다'가  $3.74 \pm 0.73$ 점으로 가장 높은 장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연구요인인 '연구논문은 너무 학술적이다'  $3.65 \pm 0.67$ 점, 조직체 요인인 '근무 중에는 바빠서 연구근거를 찾거나 활용할 시간이 없다'  $3.55 \pm 0.86$ 점, 조직체 요인인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3.46 \pm 2.00$ 점 순으로 연구근거 활용에 장애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요인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임상에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4 \pm 0.79$ 점과 연구요인에 속하는 '연구근거는 신뢰할 수 없다'가  $2.35 \pm 0.65$ 점으로 가장 낮은 장애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3).

### 4. 근거중심실무 역량

간호사의 근거중심실무 역량은 Table 4와 같이 총 평균

Table 1. Subjects' General and Research related Characteristics

(N=278)

Item	Variables	Categories	n (%)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20~30	183 (65.83)
		31~40	55 (19.78)
		≥ 41	40 (14.39)
	Level of education	Diploma	174 (62.59)
		Baccalaureate	71 (25.54)
		Graduate	33 (11.87)
	Clinical experience (year)	≤ 5	137 (49.28)
		6~10	69 (24.82)
		11~15	25 (9.00)
		16~20	20 (7.19)
		≥ 21	27 (9.71)
	Position	Staff nurse	208 (74.82)
		Charge nurse	40 (14.39)
		Head nurse	30 (10.79)
Workplace	Medical ward	83 (29.86)	
	Surgical ward	95 (34.17)	
	ICU	24 (8.63)	
	ER	11 (3.96)	
	Others	65 (23.38)	
Research characteristics	Taking research methodology course	No	142 (51.08)
	Research experience	No	218 (78.41)
	Taking statistics course	No	169 (60.79)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y	No	236 (84.89)
	Attendance of academic conference	No	205 (73.74)
	Academic journal reading	No	246 (88.49)
	Do you feel the need for research evidence?	Yes	243 (87.41)
	When do you feel the need for evidence?	When teaching other nurses	61 (25.10)
		To be a competent professional	63 (25.93)
		To know exactly about the nursing procedure	58 (23.87)
		When an error occurs in nursing practice	27 (11.11)
		When placed in a new clinical setting	34 (13.99)
	Do you have intention to apply the research evidence?	Yes	242 (87.05)
	Do you know EBP?	Yes	102 (36.69)
No		60 (21.58)	
Heard of name		116 (41.73)	
Route to know EBP	Hospital	66 (30.27)	
	School	96 (44.04)	
	Academic society	8 (3.67)	
	Article	6 (2.75)	
	Web site	27 (12.39)	
	Colleagues	5 (2.29)	
	Others	10 (4.59)	



Table 2. Nurses' Access and Use of Information Resource

(N=278)

Item	Variables	Access	Use
		M±SD	M±SD
Paper resources	Orientation materials	3.50±0.74	3.48±0.78
	Text book	3.35±0.85	3.31±0.88
	Nursing book	3.32±0.86	3.26±0.88
	Clinical guideline	3.31±0.77	3.28±0.75
	Ward conference materials	3.11±0.90	3.02±1.00
	Personal book	3.08±0.80	3.00±0.83
	Leaflet/booklet	3.06±0.75	2.96±0.84
	Medical devices manual	2.92±0.83	2.92±0.90
	Academic journal at ward	2.58±0.88	2.42±0.90
	Academic journal at library	2.18±0.85	2.13±0.84
	Subtotal	3.04±0.48	2.97±0.51
Human resources	Staff nurse	3.57±0.89	3.52±0.93
	Nurse manager	3.38±0.88	3.33±0.93
	Physician	3.26±0.91	3.27±0.95
	Previous experience	3.21±0.72	3.22±0.77
	Other department staff	2.77±0.94	2.71±0.95
	Faculty members at school	2.28±1.02	2.20±1.01
	Subtotal	2.95±0.57	3.03±0.54
Electronic resources	Internet site	3.56±0.79	3.41±0.92
	Mass media (TV, Radio)	2.96±0.76	2.81±0.83
	International electronic database (MEDLINE/CINAHL)	2.44±0.90	2.36±0.93
	Domestic electronic database (RICH/RISS4U)	2.33±0.98	2.27±0.99
	Subtotal	2.82±0.55	2.71±0.61
Total	3.00±0.43	2.94±0.44	

평점은 5점 만점에 2.70점(±0.50)으로 중정도의 역량을 나타내었으며 항목 중 역량이 높은 부분은 ‘국내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3.25±0.88)’, ‘환자의 선호도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3.01±0.70)’, ‘인력 및 자원 등의 임상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3.01±0.71)’에서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역량이 낮은 부분은 ‘간호실무에서 EBP의 목적,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2.44±0.78)’, ‘EBP를 위한 모델을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다(2.42±0.76)’, ‘EBP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2.35±0.73)’의 순으로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역량이 낮았다.

### 5. 근거중심실무의 장애요인과 역량의 상관관계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장애요인과 역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장애요인은 총 평점 5점 만점에 3.02±0.41점으로 나타났으며 근거중심실무의 장애요인 하위영역 중 간호사 요인( $r=-.31, p<.001$ ), 조직체요인( $r=-.20, p<.001$ ), 연구요인( $r=-.12, p<.040$ )은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사, 조직체, 연구 장애요인을 낮게 인지할수록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요인( $r=-.08, p<.147$ )도 역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5).

### 6.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근거중심실무의 장애요인과 역량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근거중심실무의 장애요인 및 역량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간호사의 특성별 장애요인 영역을 살펴보면 연구경험이 있고( $t=-2.19, p=.029$ ), 학회에 가입되어 있고( $t=-3.68, p<.001$ ),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간호사( $t=-2.13, p=.033$ )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의사소통과 관련한 장애요인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에 가입되어 있고( $t=-2.42, p=.002$ ),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간호사( $t=-3.13, p=.002$ )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조직체 장애요인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간호사( $t=-3.50, p=.013$ )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연구 장애요인을 낮게

Table 3. Barriers to EBP

(N=278)

Item	Variables	M±SD	Rank
Communication	Research information is too complicated	3.74±0.73	1
	Research information is too academic	3.65±0.67	2
	Difficult to use the library	3.46±2.00	4
	Statistics are difficult to study hard to read	3.31±0.86	9
	Terminology used in the study differs from the clinical	3.17±0.76	11
	Subtotal	3.46±0.63	
Organization	Nursing practice is so busy that there is no time for implementation	3.55±0.86	3
	The problem with research information is that it takes too long to learn the skills necessary to use it	3.38±0.75	6
	Whenever I have tried to use research in the past it costs me too much money	3.27±0.84	10
	We don't have the facilities to use research in the ward itself	2.97±0.95	14
	Because it works as a supervisor, it does not require evidence	2.44±0.83	22
	Subtotal	3.12±0.51	
Research	The decisions I make are really complicated and research is often too simple to be of any use	3.41±0.71	5
	Patients are all individuals and research tends to ignore that.	3.36±0.76	8
	I find it hard to relate to my patients	3.01±0.72	13
	The results are not generalizable to domestic setting	2.76±0.64	16
	Is the best way in clinical practice but research is not	2.73±0.80	19
	Research is always out of date it can't keep up with our practice	2.35±0.65	24
	Research evidence is not reliable	2.93±0.41	
Nurse	Knowledge gained through experience is more useful than research	3.37±0.80	7
	My own professional education hasn't really prepared me for using research in my decisions	3.02±0.76	12
	I have no real confidence in reading research	2.77±0.88	15
	I don't have the necessary computer skills to access and use research properly	2.74±2.59	17
	The research is not relevant to the nurse's practice	2.73±0.72	18
	Using research in the past hasn't resulted in noticeably better care in my experience	2.59±0.76	20
	I don't really have any motivation to use research in my practice	2.47±0.86	21
	Implementing research is not often led by nurses who are good practitioners	2.44±0.79	23
	Subtotal	2.76±0.57	
Total	3.02±0.41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이나( $t=-3.81, p<.001$ )이나 통계학 강좌( $t=2.23, p=.027$ )를 이수한 경험, 연구경험( $t=-2.60, p=.010$ ), 학회 가입( $t=-3.09, p=.002$ ), 학술대회 참석경험( $t=-3.50, p=.001$ )이 있거나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읽는 간호사( $t=-3.78, p<.001$ )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간호사 개인 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임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논문을 찾아보는 간호사( $F=4.80, p=.009$ )와 근거중심실무에 대해 아는 간호사( $F=11.24, p<.001$ )가 간호사 측면의 장애요인이 낮게 나타났다.

근거중심실무 역량 부분에서는 41세 이상의 간호사가 40세 이하의 간호사보다( $F=13.89, p<.001$ ), 16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16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보다( $F=7.26, p<.001$ ), 수간호사가 일반간호사나 책임간호사보다( $F=9.56, p<.001$ ) 근거중심실무 역량이 높았으며 연구방법론이나( $t=3.25, p=.001$ ) 통계학( $t=2.68, p=.008$ )을 이수하였거나, 연구경험( $t=2.88, p=.004$ ), 학회 가입( $t=3.67, p<.001$ ), 학술대회 참석( $t=4.58, p<.001$ ), 학술지 정기 구독( $t=6.98, p<.001$ )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역량이 높았으며 임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

## 논 의

Table 4. Nurses' Competency to EBP (N=278)

Variables	M±SD
Search local article	3.25±0.88
Consider patient preference	3.01±0.70
Consider resources	3.01±0.71
Select evidence by priority	2.94±0.78
Apply of evidence in nursing interventions	2.93±0.73
Evaluate outcomes of evidence application	2.86±0.71
Select best evidence	2.83±0.75
Search abroad article	2.81±0.88
Identify gaps in EBP knowledges	2.69±0.77
Recognize ratings of strength of evidence	2.69±0.74
Recognize accuracy of evidence	2.60±0.71
Classify level of evidence	2.58±0.74
Classify kind of evidence	2.58±0.77
Explain role of change promotor, opinion leader and core group	2.56±0.72
Identify practice area for EBP change	2.55±0.75
Serve as an EBP mentor	2.50±0.69
Define EBP in terms of evidence, expertise, and patient values.	2.49±0.74
Explain purpose and importance of EBP in clinical practice	2.44±0.78
Explain EBP model and utilize	2.42±0.76
Explain process of EBP	2.35±0.73
Total	2.70±0.50

Table 5. Correlation between Barriers and Nurses' Competency to EBP (N=278)

Variables	Competency
	r (p)
Barriers	
Nurse	-.31 (< .001)
Organization	-.20 (< .001)
Research	-.12 (< .040)
Communication	-.08 (< .147)

을 찾아보는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 $F=4.54, p=.012$ )보다 역량이 높았으며 근거중심실무를 알고 있는 간호사가 모르거나 들어보았으나 정확히 모르는 간호사에 비해 역량이 높았다( $F=27.52, p<.001$ ).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정보자원への 접근과 활용정도 및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 및 역량에 대해 파악하여 근거중심실무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사의 연구활동을 조사한 결과 연구방법론이나 통계학 강좌를 이수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48.9%였으나 학회 참석률(15.1%), 학술지 구독률(11.5%)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에서의 Oh 등(2004)의 연구에서 학회 가입률(42%), 학회 참석률(52%)과 국외 Retsas (2000)의 연구에서의 정기적 논문 구독 수준(3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21.6%의 간호사들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Oh 등(2004)의 연구에서의 53%와 국외 Olade (2004)의 연구에서 20.8%와 비교해 볼 때 간호사의 연구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연구 활동이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지역별 간호사의 연구 활동 참여의 차이와 관련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근거의 필요성을 87%의 간호사가 느끼고 있었으나 근거중심실무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1.6%로 Oh 등(2004)의 연구에서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0.3%인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약 90%의 간호사가 연구근거를 적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임상에서 연구근거의 필요시 자료를 찾아보는 간호사도 72.4%로 나타나 임상간호사들의 과학적 연구근거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들이 종이문서자원, 인적자원, 전자문서자원의 순으로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세부 순위별로 볼 때 인적자원 중 '동료간호사'에게서 정보를 구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간호사들이 정보를 구하는 출처를 조사한 국외 연구(Ozsoy & Ardahan, 2008)에서도 동료간호사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항목별 접근도를 살펴보면 종이문서자원 중 '도서관에 배치된 학술지나 논문'에서 정보를 구하는 경우가 매우 낮은 순위를 보였는데 Provikoff, Tanner, & Pierce (2005)의 연구에서도 도서관의 논문이나 학술지에의 접근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하나 신뢰성과 타당성이 낮은 '동료간호사'와 같은 인적자



Table 6. Barriers and Competency to EBP according to Nurse's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Barriers								Competency	
		Communication		Organization		Research		Nurse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Age (year)	20~30	3.48±0.67	2.31	3.15±0.51	1.78	2.93±0.41	0.93	2.81±0.60	2.85	2.64±0.45	13.89
	31~40	3.53±0.53	(.101)	3.12±0.47	(.170)	2.98±0.41	(.393)	2.76±0.56	(.059)	2.62±0.49	(<.001)
	≥41	3.27±0.52		2.98±0.53		2.86±0.43		2.57±0.37		3.07±0.59	
Clinical experience (year)	≤5	3.48±0.72	1.53	3.13±0.51	3.00	2.91±0.38	1.96	2.80±0.62	2.17	2.67±0.40	7.26
	6~10	3.48±0.51	(.193)	3.20±0.52	(.019)	2.96±0.47	(.101)	2.80±0.57	(.072)	2.57±0.56	(<.001)
	11~15	3.64±0.53		3.23±0.48		3.11±0.41		2.84±0.54		2.57±0.40	
	16~20	3.25±0.36		3.02±0.33		2.80±0.45		2.56±0.35		3.03±0.61	
	≥21	3.31±0.63		2.84±0.52		2.88±0.45		2.53±0.40		3.03±0.59	
Position	Nurse	3.50±0.65	1.35	3.14±0.51	0.78	2.94±0.40	0.14	2.80±0.60	2.14	2.66±0.47	9.56
	Charge nurse	3.40±0.55	(.261)	3.08±0.52	(.456)	2.90±0.44	(.868)	2.64±0.51	(.120)	2.63±0.51	(<.001)
	Head nurse	3.32±0.63		3.03±0.48		2.92±0.41		2.76±0.57		3.07±0.57	
Research methodology course	Yes	3.40±0.54	-1.59	3.12±0.56	0.04	2.89±0.42	-1.45	2.63±0.50	-3.81	2.80±0.55	3.25
	No	3.52±0.70	(.112)	3.12±0.46	(.968)	2.97±0.40	(.147)	2.89±0.61	(<.001)	2.60±0.44	(.001)
Research experience	Yes	3.31±0.52	-2.19	3.03±0.49	-1.48	3.51±0.65	-0.00	2.59±0.54	-2.60	2.86±0.61	2.88
	No	3.51±0.65	(.029)	3.14±0.51	(.139)	2.93±0.40	(.994)	2.81±0.57	(.010)	2.65±0.46	(.004)
Statistics course	Yes	3.39±0.56	-1.51	3.08±0.55	-0.88	2.92±0.43	-0.26	2.67±0.52	-2.23	2.80±0.56	2.68
	No	3.51±0.67	(.132)	3.14±0.48	(.380)	2.94±0.40	(.789)	2.82±0.60	(.027)	2.63±0.45	(.008)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y	Yes	3.30±0.58	-1.87	2.94±0.47	-2.42	2.82±0.35	-1.95	2.51±0.49	-3.09	2.96±0.68	3.67
	No	3.49±0.63	(.063)	3.15±0.51	(.016)	2.95±0.42	(.051)	2.81±0.57	(.002)	2.65±0.45	(<.001)
Attendance of academic conference	Yes	3.23±0.53	-3.68	2.96±0.45	-3.13	2.89±0.42	-0.99	2.56±0.52	-3.50	2.92±0.57	4.58
	No	3.54±0.64	(<.001)	3.18±0.52	(.002)	2.95±0.41	(.322)	2.83±0.57	(.001)	2.62±0.45	(<.001)
Academic journal reading	Yes	3.24±0.51	-2.13	2.97±0.46	-1.74	2.76±0.44	-2.49	2.41±0.40	-3.78	3.24±0.53	6.98
	No	3.49±0.64	(.033)	3.14±0.51	(.082)	2.95±0.40	(.013)	2.81±0.57	(<.001)	2.63±0.45	(<.001)
Need for research evidence	Yes	3.42±0.50	-1.78	3.11±0.51	-1.00	2.92±0.41	-1.04	2.74±0.59	-1.06	2.71±0.51	1.34
	No	3.77±1.15	(.083)	3.20±0.53	(.314)	3.00±0.43	(.299)	2.90±0.42	(.133)	2.59±0.42	(.180)
Action at research need	Article search	3.43±0.51	1.62	3.12±0.57	1.75	2.86±0.43	0.61	2.54±0.56	4.80	2.77±0.50	4.54
	Expert advice	3.44±0.65	(.200)	3.09±0.51	(.174)	2.94±0.41	(.541)	2.76±0.57	(.009)	2.59±0.54	(.012)
	Ignore	3.64±0.57		3.27±0.44		2.97±0.43		2.96±0.50		2.45±0.36	
Knowledge of EBP	Yes	3.36±0.52	3.49	3.02±0.47	2.76	2.90±0.43	0.45	2.56±0.48	11.24	2.97±0.52	27.52
	No	3.63±0.92	(.032)	3.16±0.51	(.065)	2.95±0.38	(.636)	2.95±0.80	(<.001)	2.54±0.41	(<.001)
	Heard of EBP	3.46±0.51		3.18±0.53		2.95±0.41		2.84±0.44		2.54±0.42	

원 보다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연구논문과 같은 종이문서 자원 및 MEDLINE/CINAHL, 국회도서관 및 보건연구정보센터와 같은 전자문서자원への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있는 행정적, 조직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간호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보자원은 인적자원, 종이문

서자원, 전자문서자원의 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Oh 등(2004)의 연구에서 임상지침서나 선배간호사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동료간호사와 같은 인적자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을 찾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구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동료간호사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바쁘고 힘든 업무 가운데 비교적 손쉽게 동료간호사에게로부터 정보를 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은 5점 만점에 3.02점으로 중정도 이상의 장애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장애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Oh et al, 2004; Park, 2001; Thompson et al, 2004)에서도 중정도의 장애를 느끼는 것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근거가 임상간호사에게 배포 및 전달되는 과정과 관련된 의사소통요인이 가장 높은 장애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Park (2001), Lee와 Kim (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요인에서의 주된 장애는 ‘연구는 너무 복잡하고 학술적이며 통계법이 난해해서 읽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연구측면에서 주된 장애요인은 ‘임상은 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나 연구논문은 제한적이다’로 나타나 임상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실제적 관점에서 반영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근거가 실무에서 쉽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 보수교육이나 정규교육 과정에 통계학과 방법론을 배울 계속 교육의 기회를 포함시키고 연구근거를 평가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중심간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조직체 측면에서의 주된 장애는 ‘임상 현장은 너무 바빠서 연구근거를 적용할 시간이 없다’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측면에서 주된 장애요인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연구근거보다 더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자체의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연구근거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근거중심실무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교육이 임상간호사들에게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현장에서 연구근거를 환자간호에 적용하기 용이한 조직차원의 지원이 충분할 때 근거중심실무의 수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간호사의 근거중심실무 역량의 총 평점은 5점 만점에 2.70점으로 중정도의 역량을 나타내었다. Koehn & Lehman (2008)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근거중심실무의 역량을 조사한 연구에서 7점 만점에 4.40점으로 중정도 이상의 역량을 나타내어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 비해 국내의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이나 교육이 아직은 미흡하며 실제 임상에서 근거중심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조직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근거중심 역량의 세부항목별로 살펴볼 때 실제 간호사들이 환자의 선호도, 인력이나 자원 등의 임상상황을 고려하는 본인의 실무경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중정도 이상의 역량을 나타내었으나 근거중심실무 모델을 열거하거나 근거중심실무에 관한 개념이나 과정, 목적을 설명하는 지식 및 기술부분에서 중정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Koehn과 Lehman (2008)의 연구에서도 간호연구 수행능력이나 최선의 근거를 검색, 선택, 평가하는 부분과 같은 근거중심실무의 지식과 기술영역에서 7점 만점에 평균 2.62점으로 중정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임상의 상황이나 환자의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의 임상실무 경험과 관련된 역량은 높으나 연구근거를 검색하고 이를 평가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과 같은 근거중심실무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거중심실무의 장애요인과 역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장애요인의 하위 영역 중 간호사측면( $r=-.31, p<.001$ ) 및 조직체측면( $r=-.20, p<.001$ )과 역량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보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더 유용하다고 평가하거나 연구근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의 간호사 요인과 근무 중에 바빠서 연구근거를 찾거나 활용할 시간이 없고, 임상현장에서 연구근거를 활용할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등의 조직체 요인들이 높을수록 역량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 자신의 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려는 의식 및 태도의 변화와 조직체의 근거중심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조직체 분위기 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학술대회에 참석하며 학술지를 읽는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장애요인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통계학 강좌가 보수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겠으며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논문을 쉽게 접하여 연구를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근거중심실무 역량을 살펴보면 임상경력이 16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41세 이상이고 수간호사인 경우가 일반간호사보다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역량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용어, 공감, 확신의 관련성을 조사한 McEvoy, Williams와 Olds (2010)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근거중심 실무에 대한 역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다. 이는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일반적인 배경지식보다는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관리직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경우 일반 간호사보다는 자원을 배분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많이 담당하므로 근거중심실무 활용에 대해 동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Sackett, Straus, Richardson, Rosenberg, & Haynes, 2000).

본 연구결과는 근거중심실무의 접근과 활용을 촉진시키고 장애를 줄이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적, 조직적, 교육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연구적 측면에서는 간호사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연구를 분석하는 방법과 근거에 대한 비판능력을 향상시켜 연구근거 접근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호 행정의 조직적 측면에서는 근거중심 간호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종이 및 전자문서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를 낮추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직체요인과 의사소통요인의 장애를 파악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근거중심실무 도입 및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및 실행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간호사의 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와 교육, 조직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마련되어 간호사의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장애요인을 낮추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를 바탕으로 생성된 근거를 포함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자원에 대한 간호사의 접근과 활용정도 및 근거중심실무 장애요인과 역량을 파악하여 근거중심실무의 정착을 위한 전략수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7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사가 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종이문서자원에 가장 많이 접근하며, 실제 활용하는 정보자원은 인적자원으로 나타난 반면 최신 연구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화된 연구근거에의 접근과 활용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가 연구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 중정도 이상의 장애를 느끼며 중정도의 근거중심 역량을 나타내었다. 간호사의 특성과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은 경우, 연구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근거중심실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연구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장애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근거중심실무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연구근거 실무 활용도는 낮았으며 연구근거를 실무에 활용하는 데 지각하는 장애가 높았으며 이러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근거중심실무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근거의 접근과 활용을 촉진시키고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장애요인을 감소시키고 근거중심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근거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근거중심실무 역량의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의 근거중심실무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지역별, 기관별, 임상영역별로 대표성을 확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장애요인을 낮추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Academic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 [ACE] (2005). *Essential competencies for evidence-based practice in nursing*. San Antonio: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 Brown, C. E., Wickline, M. A., Ecoff, L., & Glaser, D. (2009). Nursing practice, knowledge, attitude and perceived barriers to evidence-based practice at an academic medical

- cent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2), 371-381.
- Chau, P. C., Lopez, V., & Thompson, D. R. (2008). A survey of Hong Kong nurses' perceptions of barriers to and facilitators of research utilizatio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1(6), 640-649.
- Cunningham, J. B., & McCrum-Gardner, E. (2007). Power, effect and sample size using GPower: Practical issues for researchers and members of research ethics committees. *Evidence Based Midwifery*, 5, 132-136.
- Dragan, I. (2009). Thaching evidence-based practice: Perspectives from the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viewpoint. *Annals Academy of Medicine*, 38(6), 559-563.
- Estabrooks, C. A., Chong, H., & Brigidear, K. (2005). Profiling Canadian nurses' preferred knowledge sources for clinical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7(2), 118-141.
- Funk, S., Champague, M., Wiese, K., & Tornquist, E. (1991). Barriers to using research findings in practice: The clinician's perspective. *Applied Nursing Research*, 4(2), 90-95.
- Kim, G. H. (2003). Evidence based nursing. *The Korean Nurse*, 42(6), 54-63.
- Koehn, M. L., & Lehman, K. (2008). Nurses' perceptions of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2), 209-215.
- Lee, E. H., & Kim, H. S. (2000). Nurses' perception of barriers to research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5), 1347-1356.
- McEvoy, M. P., Williams, M. T., & Olds, T. S. (2010). Evidence-based practice profile: Difference among allied health professions. *BMC Medical Education*, 10(69), 1-5.
- McNerney, P., & Suleman, F. (2010). Exploring knowledge, attitudes, and barriers toward the use of evidence-based practice amongst academic health care practitioners in their teaching in a South African university: A pilot study. *World 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7(2), 90-97.
- Oh, E. G., Oh, H. J., & Lee, Y. J. (2004). Nurses' research activities and barriers of research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838-848.
- Olade, R. A. (2004). Evidence-based practice and research utilization activities among rural nurse. *Journal of Scholarship*, 36(3), 220-225.
- Ozsoy, S. A., & Ardahan, M. (2008). Research on knowledge sources used in nursing practices. *Nurse Education Today*, 28(5), 602-609.
- Park, H. S. (2005). *A study on accessibility, usefulness, barriers of evidence based nursing of clinic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Park, M. (2004). Understanding evidence-based nursing. *Nurse-zine*, 20, 84-87.
- Park, M. (2006).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evidence-based nursing*. Seoul: Koonja Press.
- Park, O. S. (2001). *A study on diffusion of nursing knowledge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Provikoff, D. S., Tanner, A. B., & Pierce, S. T. (2005). Readiness of U. S. nurses for evidence based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05(9), 40-51.
- Retsas, A. (2000). Barriers using research evidence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1(3), 599-606.
- Sackett, D. L., Straus, S. E., Richardson, W. S., Rosenberg, W., & Haynes, R. B. (2000). *Evidence based medicine: How to practice and teach EBM* (2nd ed.).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STTI]. (2005). *Evidence Based Nursing position statement*. Retrieved February 15, 2011, from <http://www.nuringsociety.org/aboutus/PositionPapers/EBN>
- Solomons, N. M., & Sprose, J. A. (2011). Evidence-based practice barriers and facilitators from a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perspective: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9(1), 109-120.
- Thompson, C. (2003). Clinical experience as evidence in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3), 230-237.
- Thompson, C., MaCaughan, D., Cullum, N., Sheldon, T. A., Mulhall, A., & Thompson, D. R. (2004). *Nurses' use of research information in clinical decision making: A descriptive and analytical study*. NHS R&D report.